

광주시, AI기반 광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첫 단추'

AI사업단·광산업진흥회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 협약 광산업 생산성 향상·재난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통한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광기술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최근 광주 AI사업단 대회실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융합산업과 AI 산업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 기획, 과제 공동 수행, 광융합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AI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연계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융합 산업과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산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AI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는 광산업 기반 도시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융합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기술 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 산업의 성장과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번 협약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협력을 통해 산업 혁신의 핵

심 엔진으로서의 광융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사업단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삼성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X' 구현 및 AI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AI+X'란 기존 산업을 클라우드, 데이터, AI 기술 융합 기반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개념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AI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서

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실증 등 인프라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다.

특히 한국인공지능협회 소속 1000여 AI 기업들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된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AI 포럼 등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사업단과 함께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민 '화합 한마당' 제58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21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공식 행사에 앞서 열린 거리 퍼레이드 '오월의 행진'에서 서아프리카 전통 리듬과 춤이 선보여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 시동

에너지신산업 분야 응모 예정...나주서 산·학·연·관 전략회의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공모사업 대응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일진전기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산·학·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일본·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에너지 거대 신생 기업 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활용 방안 등 특구 유치를 위한 기관별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자유롭고 창의적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제품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

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사업으로, 지난 8일 '제233차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최초 전면 사후 규제를 시행하고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고도화와 확대 개편을 통해 2023년에 2~3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 10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공모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응모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사업'은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절대 과제다.

전남도는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를 발굴해 유치 논리를 보강하는 등 한발 앞서 대비태세를 갖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광주, 고려인 정착 돕겠다"

세계고려인대회&고려인단체총연합 출범... "포용도시로 나아갈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가 80년 광주를 외면하지 않고 지지해주었듯 광주도 고려인마을 동포들의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지난 19일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세계고려인대회&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에서 "오월정신이 커져 고려인마을이 만들어졌고, 이제 광주는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강 시장은 "전 세계 55만 고려인을 하나로 모아 줄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에서 세계고려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당연하고, 광주가 포용도시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이경선 광주시 교육감, 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이귀순 시의회 부의장, 최지현·박수기 시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박상규 고려인동맹위원회 위원장, 신조아 한국고려인단체 전국연합회장,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 김 알렉산드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부회장, 지가이 빅토리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에는 전국 유일의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이 있으며, 법무부 통계로는 4700여명, 고려인마을을 추산으로는 7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예술여행 민간 사업자 공모

광주시가 예술여행 거점을 제공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자다. 선정된 시설에는 여행자 편의 서비스, 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예술여행 플랫폼을 구축한 뒤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설 개선 후 지원금 10%를 부담하고,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계획, 공간 적합성, 운영역량 등을 심사해 15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남권 산단·관광 투자유치 확대 모색

전남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다음달 수도권 설명회

전남도가 지난 19일 도청에서 서남권 산단단지 및 관광 투자유치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 신안, 함평, 완도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용지 기업 수요 및 투자유치 가능 부지 현황, 관광 분야 투자유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군별로 ▲목포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해남군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 ▲영암군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무안군 항공특화산단 조성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기업유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완도군 신지해양레저리조트 조성 ▲진도군 군내 일반산단 조성 ▲신안군 압해 농공단지 조성 등을 발표·공유했다.

전남 서남권은 섬과 바다, 갯벌 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지닌 곳이다. 하나카드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실적 증가율 전국 1위를 보인 지역으로 관광객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관광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분양 산업단지 등 서남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유치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전남도는 6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남 투자환경과 지원제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추향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